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8일 수요일 음 5월 24일 (1물)

기상정보

구름많고 비

제주는 구름이 많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5℃, 낮 최고 기온은 27-32℃로 예상된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 사이 한라산 남쪽 지역 중심 약한 비가 오겠으니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60%
30%	성 산	60%
60%	고 산	60%
6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림 24/31℃

모레 ☀ 구름많음 24/31℃

월드뉴스

하마스, 20년만에 가자지구 통치기구 해산

NCAG 중심 통치체계 전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일(현지시간) 약 20년간 이어져 온 가자지구 통치 기구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후 가자지구는 민정 관리를 담당할 전문가 중심의 국가 행정위원회(NCAG) 체제로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마스 공보국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NCAG로의 원활한 행정 및 권력 이양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NCAG는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중재 과정에서 설립된 기구다.

다만 평화위원회는 실질적인 행동과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마스의 이번 조치는 가자지구



하마스 무장 대원들 연합뉴스

의 행정권을 NCAG에 넘길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하마스가 조건 없는 무장 해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NCAG가 치안권을 포함한 통치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통치기구 해산이 무장 해제를 피하기 위한 속임수라며 '트럼프 평화안'의 전면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한라봉 2년 -카라 2년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한정(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점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법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히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명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번)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나로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 (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건강&생활

신윤경

봄정신의학과의원장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의 36.1%로 역대 최고치다. 세 집 건너 한 집이 혼자 산다. 인류사에 전례 없는 풍경이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갈수록 혼자가 편하고 함께는 힘들다. 클릭 하나면 밥과 물건과 오락이 문 앞까지 온다. 각자의 화면 속에 나만의 왕국이 세워진다. 알고리즘은 내 취향만을 맞추고, 거슬리는 것은 차단된다. 그렇게 타자를 겪을 기회가 사라진다. 겪어보지 못한 타자는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타자는 쉽게 분노와

소통 너머 공명

협력을 일으킨다. 오늘날 갈등이 첨예하고 배타가 심화된 것은 사람들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서로를 견디는 연습이 사라져서다.

타자와 공존하는 힘은 가정과 학교, 골목과 일터에서, 선택하지 않은 타자와 부대끼며 길러져 왔다. 그 훈련장들이 무너져간다. 주장할 뿐 경청하지 않는다. 내로남불과 남 탓이 기본값이다. 소통 과잉의 시대에 소통 불가가 쌓인다.

이에 대한 각성과 반작용으로 곳곳에서 공동체 실험이 이어지나 이 또한 쉽지 않다. 공동체 살이란 게 인이자 전지구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책임감이 있으며, 자기 성찰적이고 공정한, 결속력이 강하나 배타적이지 않은 개인들이 끝없이 상호작용을 조율하고 훈련해가는 과정이다. 쉽게 누군가의 배제로 결속하는 공동체는 안과 밖의 구

분을 강화하며 바깥을 만들어 안을 지키려 한다. 이는 공존 연습이 아니라 교묘한 배타의 심화다. 문제 해결적 공동체 역시 상처와 분열의 아픔을 겪는다. 인간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공명'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웃은 답장 안에서가 아니라 답장이 흐려진 자리에서 자란다. 세상살이 자체가 공동체 살이다.

인공지능(이하 AI)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은 줄고, 1인 가구 증가의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의식주와 혼자사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가 필요했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필요가 만든 관계는 필요의 감소와 함께 사라져 간다. 소통의 한계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 진실로 견드리고 움직여져서 그 '부름'에 몸과 마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자기 효능

감을 경험하는 것을 '공명'이라 불렀다. 이러한 공명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 공명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요구되거나 계획·통제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다. 공명 없는 소통은 메아리이거나 강요이기 쉽다.

이질적인 타자와의 공존을 원하는가. 이는 시대가 던지는 물음이다. 누군가는 매끄럽기만 한 AI와의 관계에 안주할 것이고, 누군가는 AI와 더불어 더 밀도 높은 만남을 빚을 것이다. 밀도 있는 '공명' 관계의 부재가 빈부의 격차보다 더 절박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훈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타자를 진실로 존중하고 때로 견디며 환대하는 능력이다. 이는 저절로 길러지지 않는다. 우리가 쌓을 것은 답장이 아니라 밀도와 공명이다.

열린마당

범인 검거 넘어 '국민 생명' 방패로

김은성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흔히 형사라고 하면 사건이 터진 후 범인을 추적해 검거하는 사후 해결사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나 지금 제주서부경찰서 형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사후 처리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이다. 아무리 범인을 완벽하게 검거하더라도 훼손된 국민의 생명과 일상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서부 관내의 중심인 신제주 지역은 하루에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유입되는 제주의 중심이다. 대형 카지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행, 갑금 등 강력범죄

미술관, 아이들 마음이 펼쳐지는 곳

이미경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미술관은 단지 미술작품 감상에 그치는 공간일까? 아니다. 미술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다양하다. 특히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상반기에 진행한 어린이미술학교 '전시 보고, 내 마음도 펼쳐요'는 작품을 정답 보다는 자기만의 시선으로 만나는 경험을 갖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많은 아이들이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별한 점은 이들에 걸쳐 작품감상과 표현활동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첫째 날은 현재 전시 '경계 위의 그늘'을 감상하고, 둘째 날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도록 했다. 전시가 아이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관계', '상실'과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키워드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작품을 소개했다. 비록 모든 작품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미술관의 문턱을 밟는 경험 자체가 소중하다. 처음에는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할지 망설였던 아이들도 자기 이야기를 찾으면, 도화지에 솔직하게 담아내려는 열의를 보였다.

결과 중심의 교육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그 안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된다. 미술관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치기를 바란다.